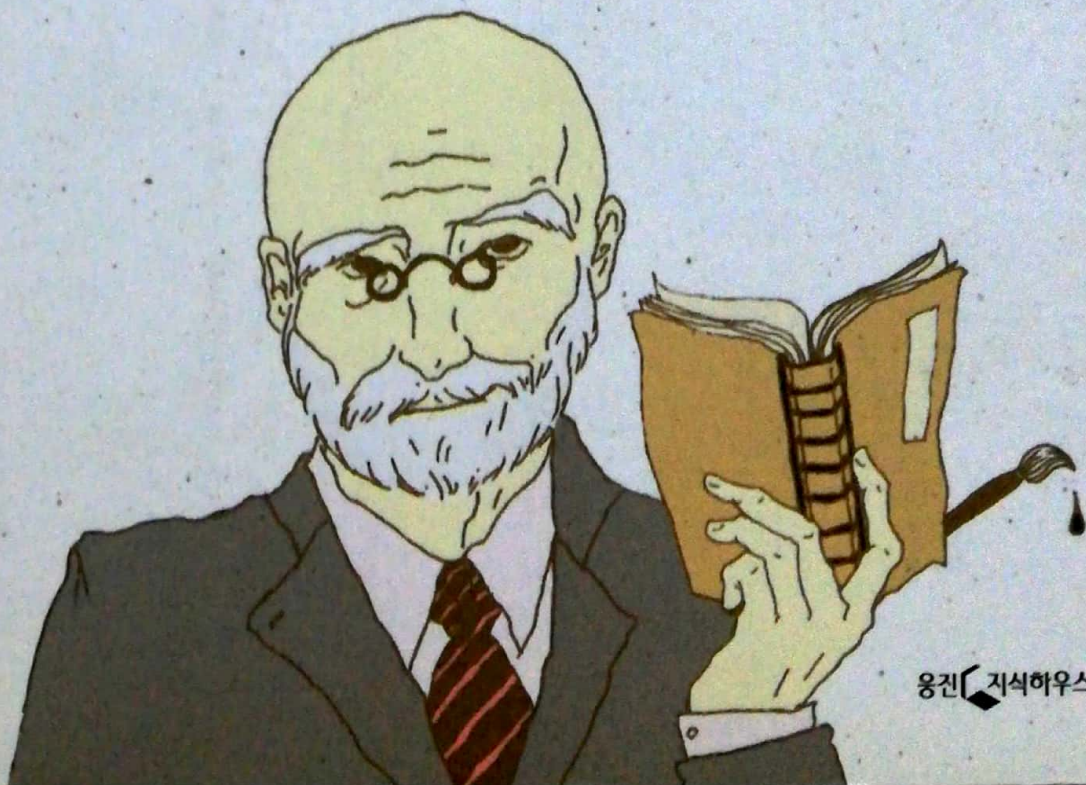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고전 속 심리여행

#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신동훈 · 고전과출판연구모임 지음

고전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각자의 깊은 내면 세계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조건으로부터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보거나 그 사건을 느낀다. 하지만 이 책은, 그라고 그들의



웅진 지식하우스

##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초판 1쇄 발행 2010년 11월 30일


지은이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발행인 최봉수 총편집인 이수미  
편집주간 신동해 책임편집 최윤경 디자인 박진범 일러스트 배슬기  
제작 한동수, 류정옥 마케팅 박창흠, 이영인, 한정덕, 최민하, 정우연  
발행처 (주)웅진씽크빅 출판신고 1980년 3월 29일 제406-2007-00046호  
임프린트 웅진지식하우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6 웅진빌딩  
주문전화 02-3670-1570, 1571 팩스 02-747-1239  
문의전화 02-3670-1077(편집) 02-3670-1028(영업) 홈페이지 <http://www.wjbooks.co.kr>

© 신동훈, 2010

ISBN 978-89-01-11508-5 03810

웅진지식하우스는 (주)웅진씽크빅 단행본개발본부의 임프린트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주)웅진씽크빅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000433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고전 속 심리여행

신동훈 · 고전과출판연구모임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차례

머리말

006

1부

## 내 마음속에 귀신이 산다

착한 아이의 숨은 진실  
〈잠화홍련전〉에 깃든 마음의 병

013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면  
〈홍길동전〉에 나타난 피해의식

029

총명함을 집어삼킨 마음의 불꽃  
〈사씨남정기〉가 보여준 열등감

045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버릇  
〈이춘풍전〉이 경고하는 허용적 양육의 문제점

063

영혼을 갉아먹는 악성 인플루엔자  
〈만복사저포기〉가 그려낸 우울증

083

이겨야 사는 여자  
〈홍계월전〉에 담긴 완벽주의의 허상

101

비틀어진 욕망의 최후  
〈변강쇠가〉가 찾아낸 반사회적 성격 장애

117

2부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무모한 마음  
〈심청가〉에서 발견한 강박적 책임

135

웃음이라는 이름의 폭력  
〈배비장전〉에 숨어 있는 떠돌림의 쾌감

153

엄마는 왜 동생만 사랑하는 걸까  
〈적성의진〉에서 찾은 편애의 아픔

175

세상에 오직 나만이 옳다!  
〈옹고집전〉이 드러낸 강박성 성격 장애

195

자식을 망가뜨린 어느 아버지의 마음병  
〈한중록〉이 가르치는 자아 존중감

213

사랑, 독을 푼다  
〈상사뱀설화〉에 담긴 사랑에 대한 집착

233

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공공의 적  
〈홍보가〉에 드러난 놀보식 이기주의의 반사회성

249



맺는 이야기

267

참고문헌

278



## 고전,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

고전문학 연구자에게 있어 고전은 오롯하게 살아 있는 세계이다. 춘향과 심청에서 배비장과 변강쇠에 이르기까지, 고전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저 멀리 있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생생한 표상으로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느낀다. 때로는 아프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은 아직도 머나먼 세계임을 느낀다. 사람들은 고전이 어렵고 따분하며 고루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전 속의 인물은 오늘날의 우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먼 시절의 존재이고 단순한 상상 속의 존재라고 여긴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부호'에 가깝다. 그들한테서 모종의 감정의 물결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기대 밖의 일이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보고 싶었다. 젊은 연구자의 감성으로 우리 고전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외치고 싶었다. 고전 속에 인간과 삶의 진실이 얼마나 생생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를, 하여 고전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고 큰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지를 증명해보이고 싶었다. 고전을 통해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적 모색의 산물이다. 우리는 '고전과 출판'이라는 화두를 놓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고전문학이 오늘날의 삶 속에 오롯이 되살아올 수 있는 길을 탐색했다. 의욕 충만한 젊은 연구자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을 속속 내놓았다. 찾아보니 길은 무척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찾은 여러 길 가운데는 시간을 두고 찬찬히 가야 할 길도 있었고, 멀리 돌아서 가야 할 길도 있었다. 꼭 우리가 가야 하는지 불투명해 보이는 길도 있었고, 우리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워 보이는 길도 있었다. 우리는 고전의 힘을 오롯이 살리는 길인 동시에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리저리 헤아려보았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들은 서사문학 전공자이거나 문학치료 전공자들이다. 서사문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과 문학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나, 서사문학을 기본 자료로 삼아서 문학치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서사문학의 구조와 의미맥락을 분석하고 작중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며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잘 모아서 오롯이 발휘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우리는 서사에 집중하고, 인간과 심리에 주목하기로 했다. 병리적 요소 내지 이상심리에 주목하여 고전 속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사에 드러난 갈등의 근원을 파고들어가 인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들어 있는 부조리나 모순에, 또는 고통과 아픔에 다가서보기로 했다. 그를 통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밑바탕에서 되새겨보면

서, 우리 자신의 내면풍경을 비추어보고자 했다. 하여 내건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 "고전 속의 정신병리, 우리는 안전할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전소설을 비롯한 여러 고전문학 작품들을 놓고 근원적이고도 전형적인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의 목록을 뽑았다. 그 인물들의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진단한 뒤, 각기 한 인물씩을 맡아서 그 심리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가 내건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고전소설을 비롯한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심리학적 분석과 문학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문학 연구자의 전문성을 살려 심리학의 틀을 넘어서는 섬세하고 생생한 심리-행동-성격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고전 속의 전형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을 통해 인간 보편의 심리적 문제를 밝게 비추어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햄릿형이나 신데렐라형 등에 견줄 수 있는, 장화홍련형, 심청형, 이춘풍형, 홍계월형 등의 성격유형을 도출하여 인간의 성격 및 행동양상에 대한 재미있고도 유용한 좌표를 마련한다.

이 중 넷째 항목에 대해 부연해본다. 우리는 흔히 특정 인물의 심리적·행동적 성향과 관련하여 햄릿형이라거나 돈키호테형, 신데렐라형 인물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거나 과대망상형 인물, 갑작스런 성공 지향형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표현이 된다. 이야기와 캐릭터가 지닌 함축과 표상의 힘에 의해, 심리적·성격적 특성이 추상적 정보가 아닌 생생한 실체로 다가오게 된다. 문제는 왜 꼭 '돈키호테' 이거나 '신데렐라' 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찾아보



면 우리 고전문학 속에도 전형적이고 표상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성격적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말이다. 우리는 이 책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성격에 관한 토종적 인물유형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앞으로 심청형과 이춘풍형, 변강쇠형, 옹고집형 같은 말이 보편화되고 그를 통해 우리의 내면적 정체성을 다각적으로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작업의 최종적 도달점은 처음부터 인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다. 우리 작업에서 지향한 도달점은 시종일관 '치유'에 있었다. 병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인물들의 심리적 특성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지닌 문제를 폭로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또는 그냥 공감하거나 동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고전 인물들을 통해 심층에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서사 곧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거기 깃든 병리적 요소를 풀어냄으로써 정신적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이는 이 책의 여러 저자가 전공하고 있는 문학치료학의 지향점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 풀어낸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안고 있는 심리적 문제와 만나다 보면 모종의 혼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놀랍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발견과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지리라고 믿는다. 마침내 마음이 그윽이 가라앉으며 그들의 손을 잡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것이 나 자신과의 뜨거운 손잡음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들의 희생적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원

고를 쓴 뒤 공동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여러 번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주제나 내용이 완전히 바뀌다시피 한 경우도 여럿이다. 그 힘겨운 과정을 감수하며 원고 작업에 정성을 다해준 젊은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그것이 힘들고 버거운 과정인 동시에 행복한 성취의 과정이었기를 기대하며, 앞날에 큰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책의 출판을 맡아 수고해준 웅진지식하우스에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책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일찍부터 참여하여 큰 자극과 도움을 주었다. 대중적 글쓰기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들의 작업을 믿음 속에 지켜보고 지원해준 것은, 그리고 그 원고를 수렴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시켜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원고의 검토와 진행을 맡아 수고해준 최윤경 님께는 따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우수저작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도 감사드린다.

고전이 우리 삶 속에 화려하게 꽃필 날을 꿈꾸며,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작업들을 수행해나갈 것을 기약한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 큰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우리 문학의 힘을 믿는 이들이다. 문학의 힘을 믿으며, 특히 고전문학의 힘을 믿는다. 그것이 삶의 진실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므로!

2010년 겨울의 길목에서  
저자를 대표하여 신동훈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버릇

(이순몽전)이 경고하는  
허용적 양육의 문제점



허랑한 이춘풍이 잠사에 뜻이 없고 이날부터 이런 오백 냥을 마음대로 쓰는지.

장취불성(長醉不醒) 맑은 소리로 일삼으며 주야로 노닐거늘

추월이는 수천 냥을 홀리려고 교태하여 이르는 말이.

“통한단 쌍문초 드리블수 능라단, 초록저고리 감만 날사주오.

은죽절 금봉채, 갓은 노리게 날 해주게. 두리 소반 주전자 화로 양등 대야 날사주게 (.....)”

온 가지로 헤어내니 허랑한 이춘풍이 일호(一毫)나 사양할까.

- (이춘풍전)에서

글쓴이 조홍윤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고전서사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건국대 HK사업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 나의 고약한 버릇에 대하여

어린 시절, 누이에게 병이 생겼다. 집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더 많았던 누이, 그 병수발을 위해 어머니 또한 집에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나는 텅 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이들이 떠난 학교 벤치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가 늘 다듬어주시던 손톱, 어느 틈엔가 보기 흉하게 자라난 손톱이 부끄러워 늘 주먹을 말아쥐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의 종례 시간에는 용의검사가 있었고, 나는 선생님에게 혼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다급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날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것은……. 시간이 흘러 내 엉망인 손을 어머니가 발견하였을 즈음엔 이미 중증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저 몸에 익은 행동을 아무런 판단 과정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나쁜 버릇이라 여기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니 병 중에도 이렇게 고약한 병이 없다.

이제는 나 스스로, 누군가 손이 엉망인 이유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이거? 정신병이야.”

누구에게나 나쁜 버릇이 있다. 다리를 떠다든가 손톱을 물어뜯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늦잠이나 게으름 같은 생활 태도의 문제뿐 아니라 도박, 지나친 흡연과 음주처럼 삶을 파괴하는 ‘중독’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버릇들을 안고 살아간다. 옛날에는 못된 버릇이 몸에 굳어지면 ‘습벽’이라 하여 병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요즘은 특히나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듯하다.

TV에서는 잇을 만하면 한 번씩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이나 젊은 층의 알코올·도박·약물 중독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할 일을 제쳐두고 주점이나 클럽, PC방에서 시간과 돈, 체력과 정신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한다.

“이럴 때가 아닌데…….”

그들도 알고 있다. 자신에게 못된 버릇이 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신은 ‘문제 있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를 걱정하고,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마시며 친구의 고약한 술버릇을 안주 삼아 이야기한다.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보다는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인다. 느끼는 바가

있는가? 그렇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당신의 모습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어 생활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갉아먹는 병, 어느 순간 자신의 이상을 어렵풋이 느끼게 되어도, 그것이 발병하는 과정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여겨져 쉬이 고쳐지지 않는 버릇, 그래서 더욱 무서운 습벽. 그 무시무시한 증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이춘풍전》이다!

### 풍류남아의 사생활

여기 한 젊은이가 있다. 사는 곳은 서울 다락골, 이름은 이춘풍 李春風. 그 집안 내력은 알기 어려우나, 부모가 남다른 능력으로 재산을 모아 장안의 거부 巨富로 행세했다. 춘풍이 이제 막 결혼하여 자식도 없이 혈기 왕성할 즈음에 부모는 일찍 세상을 뜨고, 넘치는 재산은 모두 그의 것이 되었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그를 경계할 사람이 없으니,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 세상이 그의 것과 같았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2세, 또는 졸부의 아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 사람. 부모상을 막 치러낸 그는 어떤 일에 나섰을까.

춘풍이 외입하여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외입쟁이와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여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 두기, 장기 골패 쌍륙 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옛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 주기, 어른 보면 술대접 하고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있는 일년주며 병거짓콜 열구지탕 너비

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닐 적에.....

'봄바람'처럼 한가로이 노니는 모습이 '춘풍'이란 이름 그대로다. 예나 지금이나 놀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인지, 없이 살았다는 그 시절에 뭘 놀이가 그리 많은지 모를 일이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술집으로, 클럽으로, 도박판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춘풍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기야, 재산 있겠다. 뭐라 꾸짖을 사람도 없으니, 봄날 같은 인생, 풍류로만 노닐어도 한평생이 짧았으리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끌어모아서 언제나 즐거운 놀이와 맛난 음식을 제공해주니 그 칭송이 오죽했을까. 누구라도 그와 가까워지려 애를 쓰니,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친구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어찌 좋은 시절만 이어질까. 쓰면 없어지는 것이 재물인데, 물 쓰듯 쏟아 붓기만 하고, 한 번씩 청루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달려들 적마다 수천금이 물에 닿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천하 부자 석승인들" 당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새 집안 재산을 탕진할 지경이 되자 보다 못한 아내가 눈물로 그를 만류하는데, 들어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

마오 마오, 그리 마오, 그리 마오. 주색잡기 좋아 마오. 자고로 외입한 사람 뉘 아니 당패한가. 내 말 잠깐 들어보소, 미나리골 이패두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 신세 글러지고, 동문 밖의 오청두도 투전잡기 즐기다가 말년에 걸인 되고, 남산골 화진이도 소년의 부자로서 주색잡기 즐기다가 늙어서 그릇



죽고, 모시전꼴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허방하기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기름장사 다니네. 일로 두고 불지라도 주색잡기 다시 마오.”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할 지경이면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하건만, 만류하는 아내에게 춘풍은 뭐라 대답했을까?

“자네 차차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술 잘 먹는 이태백은 앵무배로 백 년 삼만 육천 일, 하루 삼백 배로 매일 장취하였어도 한림학사 다 지내고, 자골전 일손이는 주색잡기 하였어도 나중에 잘되어서 일품 벼슬하였으니, 일로 불지라도 주색잡기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로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일등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 줄 아는 것은 돈 쓰는 일밖에 없는 춘풍도 자신감만큼은 대단하다. 하기야 이런 철학이 몸에 배어 있으니 저렇게 마음껏 풍류를 즐겼던 것이리라.

하지만 있을 때 정승이라고, 베푸는 돈에 흘러 따르던 친구들이 신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재산을 홀라당 날리고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 될 즈음, 풍류남아라는 화려한 이름은 어느새 오갈 데 없는 졸장부로 변하고 말았다. 땡땡거리던 자신감도 잠깐, 아무 대책도 없이 아내에게 매달리는 그의 모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렇듯 허탕하여 조석(朝夕)을 이룰 수 없이 탕진한지라. 춘풍이 할 일 없이

그제야 후회와 자책이 절로 나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지성으로 미는 말이,  
"자네 부디 노여워 마오, 자네 부디 설워 마소, 내 마음 생각하니 각급시이작  
비로세, 이왕지사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찌하면 종단 말고, 오늘부  
터 가중 범사를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자네 임의로 재가하여 의식이나 줄이  
지 말게 하소."

어쩌면 그것은 대책 없는 풍류남아의 정해진 행로였다. 저 혼자 누릴  
건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죄 없는 아내한테 모든 걸 떠맡기니 아내는 얼  
마나 한심했을까.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그나마 다행이  
랄까.

### 제 버릇남 줄까

모든 걸 맡기고 따르며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노라는 춘풍  
의 다짐에, 서푼 닷푼 하는 샅바느질로 허리 한 번 펴고 쉴 틈 없어도,  
착한 아내 마음에는 드디어 봄바람이 부는 듯하였으리라.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푼 받고 새김 볼 박기, 두푼 받  
고 한삼 짓기, 서푼 받고 헌옷 김기, 내돈 받고 장옷 짓기, 닷돈 받고 도포하  
기, 엷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돈 받고 금침하기, 한냥 받고 돌찌누비, 두냥 받  
고 바저누비, 세냥 받고 긴옷 누비, 녃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 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금을 모았고나. 의식이 넉넉하

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야 없다.

한푼 두푼 바느질품을 모아서 어느덧 다시 넉넉해진 춘풍네 살림살이, 이제는 정신 차린 남편과 함께 걱정 없이 좀 살아볼까 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슬슬 옛생각이 나는지 춘풍의 병이 다시 도지고 만 것이다. 풍류남아 자존심에 한 번 실패로 주저앉아 아내 눈치 보며 살기가 거북했던지, 받아 쓰는 용돈이 영 부족했던지 한 몫 단단히 벌어 화려했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자 한다. 아비 돈 쓰며 살고, 아내 돈 쓰고 살면서, 자신은 한 푼 못 벌어도 남의 돈 쓰는 일에는 이골이 났으니 나랏돈 빌려 장사를 해 수만금을 벌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운다. 춘풍의 황당무계한 계획에 놀란 아내, 일할 생각은 말고 따뜻한 방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라 간언하지만 자존심 상한 춘풍에게 모질게 두들겨 맞을 뿐이다.

땡땡거리고 내달아서 호조 돈 이천 냥을 대돈변으로 얻어내어 방물군자인 채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 춘풍이 이 말 듣고 대로하여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선전시전 비단 감듯 휘휘 칭칭 감아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천리원정 장삿길에 요망한 계집년이 잔말을 이리 하니, 이런 변 또 있는가?”

큰소리 땡땡 치며 장사하러 나선 춘풍. 수중에 돈도 있겠다, 화려했던 옛 시절로 돌아간 듯 흥이 나니 방탕한 그 버릇이 또 나온다. 결국은 평양일색 추월을 만나 장사밑천을 다 털어먹는데, 한 번 망해 굶어 죽을

뻔했던 것도 잊은 모양인지, 제 돈도 아닌 나랏돈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써버렸으니 할 일도 앞일도 생각 않고 노는 데만 열심인 그 병이 참 무섭긴 무섭다.

허랑한 이춘풍이 장사에 뜻이 없고 이날부터 이천 오백 냥을 마음대로 쓰는 구나. 장취불성 맑은 소리로 일삼으며 주야로 노닐거늘 추월이는 수천 냥을 물리려고 교대하여 이른 말이,

“통한단 쌍문초, 도리불수 능라단, 초록 저고리감만 날 사주오, 은죽적 금봉 채 가진 노리게 날 해주오, 무리소반 주전자 화로 양푼 대야 날 사주오, 동래 반상, 안성유기 구첩반상 실굽다리 날 사주오, 요강 타구 새옹 냄비 청동화로 날 사주게, 백통대 은대 금대 수복 담뱃대 날 사주오, 문어 전복 편포 주하게 날 사주오, 연안배전 장삼미로 밥쌀하게 팔아주오, 동래을산 장곽해의 날 사주오.”

온가지로 헤아내니 허랑한 이춘풍이 일호나 사양할까. 수천여 냥 돈을 비일 비재 내어주니 청산유수 아니어든 오랜손가. 일 년이 못다 가서 낭탁이 비었 구나.

애초에 춘풍이 돈 있다는 소문 듣고 단단히 털어먹으려 접근한 팜므 파탈 추월. 옷 지을 비단이며 노리게에서부터 장사할 안주감에 밥 지을 쌀까지 춘풍의 주머니에서 쪽쪽 뽑아내고 나니, 이제는 돈 떨어진 춘풍을 쫓아내는 일만 남았다.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마뻐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동 비켜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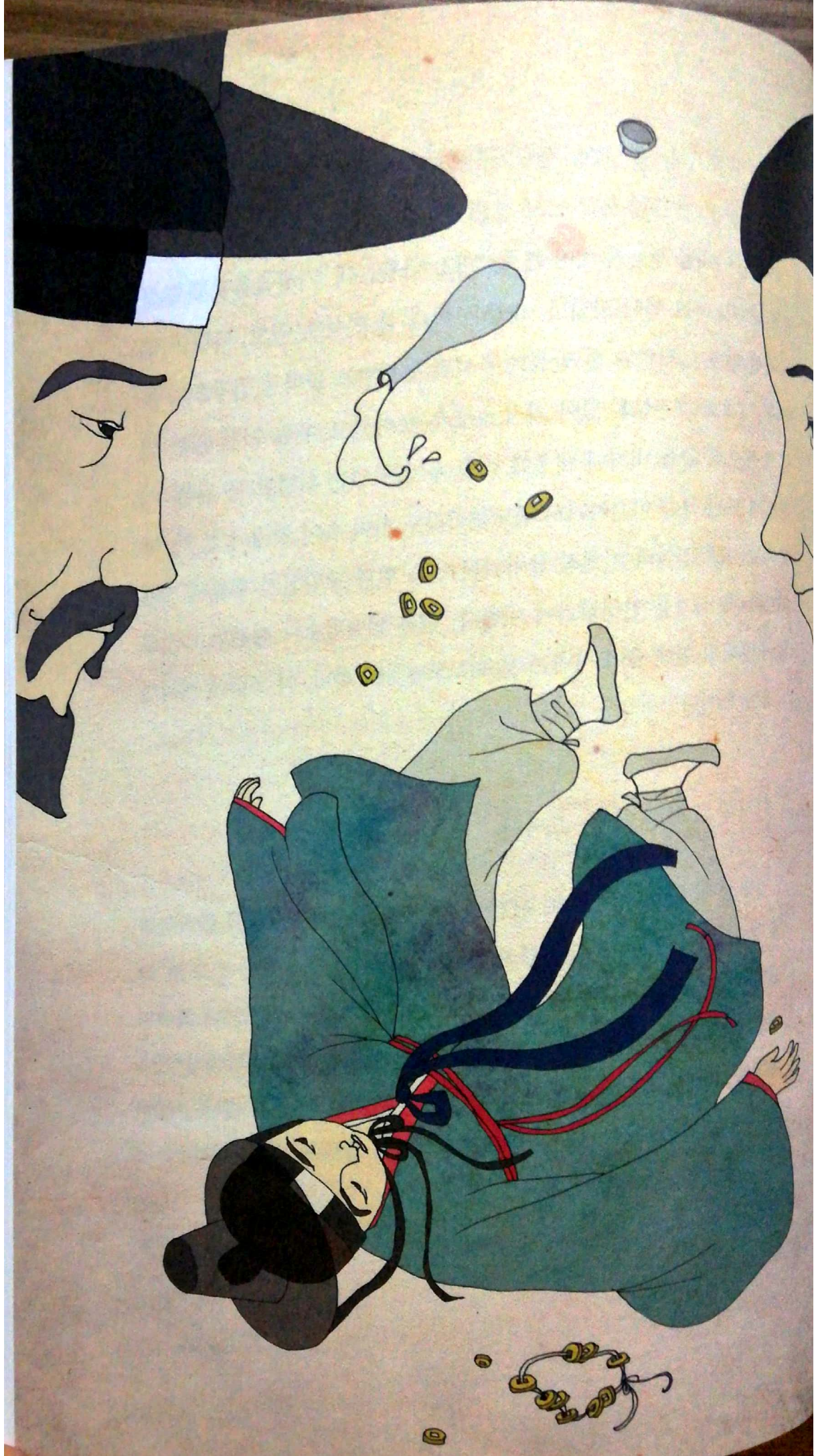
말리는 아내를 두들겨 패며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기생놀음으로 장사 밀친 날렸노라고 어찌 말할까. 춘풍은 아내 볼 면목도 없고, 나랏돈 빌려 갚을 길도 막막하니 벌 받을까 무서워 집으로는 돌아갈 엄두조차 못 낸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 거지 노릇은 못하겠고, 한푼 가치 없는 인생 죽음으로 끝을 내자니 애초에 죽을 용기가 있는 위인도 못 된다. 이래저래 모진 목숨 이어가자니 종노릇이라도 하며 숨어 지내야 할 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기생집 돌아가는 일은 흰한 모양인지 추월의 집에서 종노릇 하기를 간청하기에 이른다. 일은 저질렀으나 해결할 의지도 없이 추월의 집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모면하려 하니, 이 또한 무책임한 모습일 뿐이다.

### 사랑받고 자란 아이, 그러나

이렇듯 할 일은 제쳐두고, 시간 낭비 돈 낭비에 순간순간의 즐거움만을 찾으며, 어려움에 부딪히면 비겁하게 피하기만 하는 춘풍의 모습. 그러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자존심만 높이 세우며 아내를 박대하다 폭력까지도 불사하는데, 춘풍의 이 몹쓸 병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병증일까?

작품 속에는 춘풍의 방탕벽이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니 그의 부모에 대한 짧은 서술이다.

장안의 거부로서 다만 혈육이 춘풍뿐이라. 부모 매양 사랑하여 교동으로 길



자녀나 인물이 육질이요 현현장부라. 타인과 달라 못할 것이 전혀 없더라. 그  
렇듯 자네다가 양친이 일시에 구물하니 춘풍의 망극하여 삼상을 마친 후, 강  
근천적이 없어 춘풍을 정제할 이 없으세.....

춘풍의 부모는 그를 '매양 사랑하여', '교동(귀여운 아이)으로 길러냈다  
고 한다.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춘  
풍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  
었다. 가까운 친척도 없고 뒷사람이라고는 양친뿐이었으니, 부모로서  
예뻐할 때엔 예뻐하더라도, 버릇을 들이고 세상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  
치는 일에는 단호히 매를 들어야 했을 테지만, 춘풍의 부모는 그저 자식  
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에만 열중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 바움린드(Diana Baumrind)가  
제시한 네 가지 자녀 양육 방식 중 '허용적 양육'의 문제점이다. 허용적  
양육이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말 그대로 '허용'하는 양육 방식이다.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충동에 약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으  
스대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통제력과 독립성, 성취도  
가 아주 낮다. 또한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절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의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도 춘풍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니 제대로 짚은 듯하다.

자녀에 대한 강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경고는 매체와 교육  
을 통해 꾸준히 있었고, 그에 따라 부모의 애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  
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허용적 양육 방식에 대한 경고는 소홀했  
던 모양이다. 삶의 형벌로 여겨지던 '보릿고개 넘기기'가 점점 옛이야

기가 되어갈수록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며, 충동을 이기지 못해 게임이나 술, 도박에 빠져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춘풍의 경우도 허용적 양육 방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다. 귀한 외아들이다 보니, 자식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저 곱게만 기르고 싶었던 게 부모의 마음이었으리라. 하지만 그토록 사랑 하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줄 알았다면, 춘풍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식 사랑이 만들어낸 독소가 춘풍의 정신에 병을 일으키게 되었을 즈음엔 그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원귀가 되어 아무리 통곡하더라도 춘풍에게 지워진 이승의 업보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허용적 부모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이유를 자존감<sup>self-esteem</sup>의 발달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평가적 측면을 '자존감'이라 부른다. 수잔 하터<sup>Susan Harter</sup>에 따르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학문적 능력,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양, 운동 능력, 행동적 품행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의 자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이가 어릴수록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실재의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과장된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부모의 평가에 의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는 어린아이들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자기 가치를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여 자연스러운 자존감의 현실화를 방해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대단히 우월한 존재, 더 이상 자기 계발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춘풍도 부모로부터 과도한 애정을 받아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형성된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성격을 만들어낸 듯하다. 먹고 놀기만 해도 가치 있는 존재였던 어린 시절의 자존감이 그대로 굳어졌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먹고 노는 일 외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절제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습성으로 평생을 살아온 탓에 어느새 그 습성이 몸에 배었으니, 그리 방탕한 이유를 알 만하다.

과장된 자존감으로 인한 춘풍의 망상적 자기상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호탕하게 나라의 돈을 빌려 장사하러 떠나는 대목이다.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 춘풍이 마음만 먹으면 수만금이라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허용적인 부모의 지나친 보살핌은 자녀가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만든다. 춘풍에게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부모가 죽은 후 가산을 탕진한 춘풍이 이전의 생활을 청산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목이다. 얼핏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상황의 극복을 아내의 손에 떠넘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을 아내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갖은 고생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동안 춘풍은 뒷짐 진 채 아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유유자적했을 뿐이다. 원하는 것은 다 마련해주고 어려운 일은 나서서 해결해주

는 부모 밑에서 자라며 형성된 의존적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서 아내로 의지할 대상이 바뀌었을 뿐, 나이가 들었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춘풍의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다. 춘풍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난 과오를 살피고 경계했어야 옳다. 하지만 춘풍은 그러한 삶의 경고를 그저 '운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위기가 지나자마자 다시금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위기를 자초한다. 그가 겪은 고난은 온전히 그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독도 잘 쓰면 명약이 된다

가만히 살펴보니 병 중에도 중증인 춘풍의 병, 과연 어떤 약을 써야 고칠 수 있을까. 난감한 중에 명의를 나타나니, 평양일색 추월이라는 기생이다. 춘풍이 큰돈 짚어지고 장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추월이 그 요염한 자태를 춘풍 앞에 드러낸다. 한눈에 반해버린 춘풍은 그녀와 놀아나며 장사밑천을 몽땅 날리게 되는데, 이러한 연후에야 그의 방탕벽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호탕한 대장부에서 기생집 사환으로 전락한 춘풍, 온갖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갖은 고생을 하며 눈물로 지난일을 후회하니, 비로소 약효가 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과장된 자기상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을 터. 형편없는 모

습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온갖 회한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추월이 춘풍에게 쓴 약은 분명 독약이겠지만, 중한 병에 잘 쓰면 독약도 명약이 되는 법이다. 추월의 간악한 의도가 춘풍에게는 병증을 고칠 큰 교훈이 되었으니 참으로 역설적이다.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전정을 들어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려 죽었는가 말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촌간 장 봄눈 슬듯 하는구나…….”

이리저리 함께 몰려다니며 자신을 치켜세우던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신세 한탄 들어줄 이 하나 없어 애꿎은 기러기를 붙들고 울고 짜는 춘풍의 모습, 기러기가 다 비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일생을 방탕하게 산 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어느 한량의 이야기에 그쳤으리라. 하지만 처복 많은 춘풍은 또다시 기사회생의 행운을 얻는다. 춘풍의 소식을 들은 아내 김씨는 춘풍을 구할 방도를 궁리하는데, 그 방법이란 남장을 하고서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이웃 참판댁 만아들을 따라 춘풍을 찾아나서는 것이었다. 그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참판댁의 배려로 감사를 호위하는 회계비장의 직책을 맡게 된 춘풍의 아내는 춘풍을 찾아가 나랏돈 탕진한 죄를 물어 그에게 곤장을 치면서 자초지종을 실토하게 한다. 또한 나랏돈 빼들린 죄를 물어 추월을 추궁하여 춘풍에게 5천 냥을 물도록 한다.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춘풍은 추월에게 5천 냥을 받아 집으로 돌

아온다. 이때까지도 그는 허세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 가져간 밀천에 더하여 추월에게서 받아낸 돈 5천 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춘풍은 마치 장사에서 남긴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 비참한 신세를 면한 것이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집에 오자마자 반찬 타박, 술 타박에 여전히 아내를 괘시하다가 회계비장의 모습을 하고 다시 나타난 아내를 보고서야 일의 전말을 알게 된다. 자신을 구원한 사람이 아내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의 몹쓸 병이 치료된 셈이다.

어쩌면 추월에게 돈을 받아 귀향길에 나서는 춘풍은 '고생은 좀 했지만 전화위복이 됐으니 다 내가 복이 많은 탓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무너져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살려주는 불씨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우습게만 보았던 아내의 정성과 지혜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고, 모질게 자신의 불기를 치게 하던 아내의 모습, 그러나 언제나 자기편이었던 아내의 모습이, 그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한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모른다. 궁지에 몰리면 잠시 후회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였어도 내심으로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즉 자신이 틀렸으며, 아내의 말대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 후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주색잡기를 멀리하고 가정을 잘 돌보았다고 한다. 호되게 당하고 난 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다고 해도 오래된 습벽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터이다. 그럼에도 추월의 극약처방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의 기억에 더하여 자신을 지켜준 아내의 헌신, 이제는 부모와 스승처럼 존경의 대상이 된 아내의 존재가 다시 도지려는 춘풍의 병을 잘 다스려주었을 것이다.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한 추월과의 만남, 다시 시작한 삶에 나침반이 되어주었을 아내와의 만남, 이 두 만남이야말로 춘풍의 병을 낫게 한 기적의 치료법이였다.

### 버릇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한번 몸에 배어버린 버릇을 고치기란, 어쩌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애시당초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미 못된 버릇이 들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면 손가락에 쓰디쓴 연고를 발라두고,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면 귀청이 떨어질 만큼 요란한 자명종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괴로운 방식을 쓰고 싶지는 않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베풀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하였던 이춘풍처럼,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나쁜 습벽으로 인생을 망친 바보들과는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쓴소리를 들으면 얼굴을 찌푸린다.

춘풍도 그러했다.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왈자 패거리, 갖은 아양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기생들을 가까이 하고, 웅은 소리로 자신을 불편하게 한 아내는 멀리하지 않았던가. 약이 쓰다고 하여 아내의 치료를 거부했던 춘풍이 추월을 만나 온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자신의 습벽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을 향한 쓴소리를 우습게 흘

러들기만 해서 안 된다. 언젠가 춘풍처럼,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수술대에 누워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 수술은 성공률도 그리 높지 않다. 절망의 바닥에서 춘풍을 일으켜줄 아내의 존재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춘풍은 추월을 만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잘못이란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일, 춘풍이 그러했듯 우리도 벼랑 끝에 서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추월과 만난 춘풍의 꼴을 보고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의 모습이 춘풍과 겹쳐 보이는가? 그렇다면 서둘러서 생각을 고쳐야 한다. 습벽을 우습게 보지 마라. 습벽에 무너진 '그들'을, 춘풍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결코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춘풍의 아내와 같은 사람을 찾으라. 그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스승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형제나 자매일 수도, 애인이나 친구일 수도 있다.

춘풍의 아내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입에 쓴 약을 권하는 사람, 우리에게 엄격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우리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춘풍처럼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에게 예비된 수술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받은 치료의 경험으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춘풍의 아내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 대표저자 신동훈

충남 당진 출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하던 중 구비문학과 만나 설화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설과 민담, 고소설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존재양상과 의미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사의 원형적 의미구조와 치유적 힘에 주목하여 고전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옛이야기>(전30권)를 기획하고 <세계민담전집 1-한국편>을 엮었으며, <역사인물이야기 연구>, <살아있는 우리 신화>, <이야기와 문학적 삶>,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등의 책을 썼다.

## 고전과출판연 구모임

건국대학교와 경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 고전연구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묻혀 있는 고전 콘텐츠를 찾아내 가치 있는 출판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을 탐색 중이다. 고전이 어렵고 따분하며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전 속에 인간과 삶의 진실이 얼마나 생생하게 담겨 있는지를, 빛바랜 옛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 김혜미 · 박재인 · 박현숙 · 범효춘 · 성정희 · 신경남  
은현정 · 이동희 · 이원영 · 이해경 · 조은상 · 조홍윤



Kwoongjin

웅진 지식하우스는 (주)웅진씽크빅 단행본개발본부의 임프린트입니다.

디자인 공중립원 박진범

# 내 마음속에 귀신이 산다!

상처 입고 비몰어진 고전 속 인물들의 마음치로 분투기



\* **장화와 홍련**은 착한 아이들이었다. 너무 착한 나머지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 세상은 죽어서도 그들이 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화와 홍련은 단 한 번도 계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후처'이고 '홍녀'이며 '간악한 계집'이라 칭했던, **마음속에 독을 품은 아이들**이었다.



\* **홍길동**은 영웅이다. 그는 불합리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고, 의적이 되어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상처가 마음에 남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했던 **피해의식의 소유자**였다.

\* **심청**은 돌도 없는 효녀였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뛰어들었다. 깊은 효성의 대명사인 심청은 사실,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도 아랑곳 않고 상인들의 입장까지 알아서 걱정해주는 **'강박적 배려'의 희생양**이었다.



9 788901 115085  
ISBN 978-89-01-11508-5

값 13,000원

[www.wjbooks.co.kr](http://www.wjbooks.co.kr)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10년 우수저작및출판지원사업' 당선작입니다.